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의 야경. 금호터미널(주)은 오는 2009년까지 이곳 6천여 평에 연극공연장·음악홀·갤러리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예술전용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유스퀘어 '문화의 요람' 거듭난다

6천평 규모…영화·음악·연극·전시공간 갖춰
지역 예술인들 "문화 인프라 확충" 환영

영화·음악·연극·전시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관이 광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문화예술인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주)은 최근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에 2009년까지 유스퀘어 문화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금호가 구상 중인 유스퀘어 문화관은 연면적 6천여 평에 지상 6층 규모로, 전시관 등 수준높은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예술 전용 시설이다.

2층은 연극공연장(220석)·음악홀(240석)·갤러리(100여 평)가 들어선다. 3~6층은 1천616석 규모의 복합상영관 10개 관으로 꾸며진다. 특히 영화관 중 1곳은 국내 최대 규모인 500석의 아이맥스(IMAX)관으로 꾸며지며 1층에는 음식점과 커피숍, 서점 등을 갖춰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는다.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던 '대합실'에서 전문 음악홀과 연극 공연장·영화관을 갖춘 '복합문화 터미널'로 바꿔,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하겠다는 포부다. 금호는 이에 따라 음악홀 등 문화관은 대관료를 받지 않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영화관은 지역 영화업계가 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는 구상이며 500대 규모의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유스퀘어 문화관 투시도.

지역예술인들은 그동안 연극·음악·미술 등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보다 확충해야 예향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공연장은 광주문예회관 한 곳 뿐이어서 매년 '대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공연계 관계자들은 복합 문화공간 등장에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다.

음악인 임해철(호신대 교수)씨는 "광주지역의 경우 전문 공연장이 거의 전무한데다 최근 남도예술회관까지 없어져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며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공간은 좋은 시설과 악기 등을 갖춘 전문 연주홀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호 관계자는 "유스퀘어 문화관 건립은 광주의 관문인 터미널을 문화수도 이미지에 걸맞게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기업 이익 나눔 경영의 하나"라며 "광주 문화예술의 요람이 되게 가꾸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청 앞 광장, 시민 쉼터로

2만㎡에 생태숲·분수대 등 녹색공간 조성

광주시청 앞 광장이 숲과 물이 어우러진 녹색광장으로 바뀐다.

광주시는 29일 "시청 앞 광장 2만100여㎡의 콘크리트를 걷어낸 뒤 쾌적하고 울창한 생태숲과 야간경관, 대형 분수 등이 어우러진 녹색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이 443m에 너비 48m로 축구장 3개 면적에 달하는 이 광장은 콘크리트 바닥에 듬성듬성 잔디와 작은 나무만 심어져 있어 시민 휴식공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 광장을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공간은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 꽃 등을 적절히 심어 생태숲을 조성하고 대형 분수와 실개천을 설치, 가족단위 휴식처인 친수(親水)공간을 마련한다.

야간 조명도 설치해 시청사와 연계한 야경과 낭만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시는 7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 초 산림청의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모두 55억원이 투입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 도시가스 요금 내달부터 4% 인상

광주시는 도시가스 원료비 상승을 반영,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당 571.73원에서 594.44원으로 평균 4.0% 인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려 도시가스 원료비도 3월에는 ㎥당 428.29원으로 하락했으나 최근 유가와 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원료비가 ㎥당 451.00원으로 올라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원료비는 유가 및 환율에 연동돼 2개월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북구 저소득층 자녀 복지·교육 통합서비스
'희망 스타트' 지원센터 내달 문열어

광주시 북구는 내달 2일 북구 오치2동 사무소에서 지역사회 저소득층 자녀에 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희망 스타트'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서비스 내용은 ▲영아 및 유아 발달지원·예비초등학생 학습향상 등 보육서비스 ▲성장발달 상담·정신건강검진·방문교육 등 건강서비스 ▲아동발달 지원·학교생활 지원·아동권리 및 아동방임 예방교육 등이다.

북구는 오치2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희망스타트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건강·보육·교육·복지 등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운영위원회도 구성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빈곤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예방적 통합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웰빙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中 선양 취항 오늘부터 매주 2회

광주~중국 선양(瀋陽) 간 정기 항공편이 30일부터 취항한다.

정기편은 주 2회 월·금요일 두 차례 운영되며, 첫 취항을 맞아 선양시 관광국 국장 등 중국 측 관계자 30여 명이 광주를 방문한다.

중국 방문단은 음악가 정율성선생생가, 5·18국립묘지와 월드컵경기장, 빛의 축제, 삼한지 테마파크, 함평나비축제 등을 둘러보고 관광교류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공무원 '수화교실' 운영

광주시 북구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민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민원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화교실'을 운영한다.

제1기 수화교실은 5월2일~6월29일까지이며, 제2기는 9월3일~10월27일까지다. 수강 인원은 기별로 각 40명. 강의는 북광주 수화통역센터 소속 수화통역 강사가 맡는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건축문화 '뉴웨이브' 추진

내달 '문화수도 광주 디자인 도시' 선언

광주시가 매력적인 공간 창출과 세계 수준의 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건축문화의 '뉴웨이브'(New Wave. 새물결)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29일 "도시디자인이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결정짓는 요소로 자리 잡아가는 현실을 감안, 새로운 건축문화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주택 등 도시발전의 방향 설정과 세부 실천방안을 담은 '문화수도 광주 디자인도시'를 다음달 선언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디자인과 경관조례 제정 등 법령 정비와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디자인 맵 작성, 특정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등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뉴웨이브' 전략을 기본으로 2015년까지 세계 수준의 건축문화 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이 곧 문화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공공기관 건축물과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랜드마크 기능 강화, 가로 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도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대표 광장 ▲매력 있는 거리 ▲아름다운 간판 ▲시범 가로 조성 등 주제별 명소를 조성해 건축투어와 도시 관광상품 개발 등과 연계·개발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민·관 건축협정제 추진, 민·관 전문가의 태스크포스팀 구성, 주민 추진체 결성, 세계 유명 디자인 도시와의 국제교류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뉴 웨 이 브 (New Wave. 새물결) 전략= 문화·경제·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세계의 도시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면서 도시디자인이 도시마케팅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는 현실을 감안, 세계의 도시들이 추진하는 한 단계 높은 건축문화 운동이다.

자원봉사 관리자 아카데미 개설

내달 8~ 29일 매주 화요일

사회복지시설 등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관리자 아카데미'가 다음달 개설된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형남)는 '자원봉사관리자 아카데미' 고급과정을 개설, 5월8일~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광주시청 1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학계 등 자원봉사관리자 50여 명이다.

박윤애 '발런티어21' 사무총장·곽형모 NGO 교육포럼 공동대표·안진 광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육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참가신청 : 613-5581~4.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30일)	
정형근	224-6100
●법무사회 법률상담(30일)	
강승호	370-0600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